'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의 혁신과 대안
-보수의 여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왕혜숙(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순서

1. 문제 제기
2. 상황 진단
3. 보수의 성/가족 가치
4. 정책 제언

Ⅰ. 현재 보수의 성 인식


출포 촌년이 정말 출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 : 마초에서 여성으
한국 정치 :
마초에서 여성으로
NEWSIS


마초에서 여성으로
마초에서 여성으로
YTN
권력 불평등? 젠더 폭력?


한국 정치 :
마초에서 여성으로
한국 정치 :
마초에서 여성으로
YTN
선뜻 이해 안 가

젠더 감수성? Gender?

젠더 gender: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사회문화적 성

성 sex: 남성과 여성 신체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차이: 생물학적 성

젠더 사회화: 가족, 학교, 매스미디어 등의 사회기관을 통해 젠더 역할(gender role)을 학습: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기대(성별 고정관념 gender stereotype)를 내면화: 젠더 차이의 문화적 재생산.

젠더는 교육과 사회화를 통한 문화적 습득의 결과

성차, 생물학적으로 규정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 남성권력에 의해 구성된 성차는 사회적 규범으로 내면화되어 성별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양육, 가사노동 등 여성의 일로 규정, 여성을 가정에 묶어둠으로써 여성의 직업활동과 사회 참여를 제한하려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로 기능,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낮추고 사회활동을 통한 자기 성취를 가로 막는다.

근대적 가족 규범: 가부장적 핵/가족

근대화, 산업화 이후 공적 영역(wage labor)과 사적 영역(unpaid domestic labor)의 분리: 가정-직장의 분리

⇒ '경제 활동으로부터 분리된 영역으로서의 가정' 출현

가정 = 사적, 독자적인 친밀성의 공간/낭만적 사랑의 장소로 변모

⇒ 남편, 밥벌이 bread-winner라는 '도구적 ' 역할 수행자+ 아내, '애정적, 정서적' 역할 담당자 caregiver: '남성 1인 생계부양자-여성 보살핀노동전담자' 불평등한 성별 노동분업에 기초한 가족규범

젠더 불평등과 성별 분업 **체제**

코넬 Connell : 노동, 권력, 카텍시스에서의 성별 분업

* 카텍시스(개인적/성적 관계): 정신적 또는 감정적 에너지를 특정 인물, 대상, 관념 등에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것: 친밀성

1) 노동: **가정**과 **노동시장** 모두에서의 성별 분업

2) 권력: 기관, 국가, 군대/ 가정생활에서의 권위, 폭력, 이데올로기

3) 친밀한, 감정적, 인격적 관계(결혼, 성적 관계, 자녀 양육 등)

사회 모든 영역의 젠더 질서는 지배적 남성성 hegemonic masculinity 공고히 하고, 저항적 여성성을 배제: 이성애 터한 결혼 규범, 공식 영역에서의 권위, 유급노동, 육체적 힘, 강인함 등의 이미지 재생산.

Ⅱ. 상황진단 : 한국사회의 젠더 갈등

혐오의 젠더화, 정치화

2015년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넥슨불매운동
묻지마 범죄 vs. 여성혐오 범죄



여성혐오
김치년/보슬아치↔개념녀
(기계적 평등성)
찌질한 루저: 규범적 남성성 해체
국가 정책에 의한 남성 역차별

남성혐오
한남충, 실자지, 자지랖
극단적인 미러링
남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분리주의/본질주의: 여성우월주의
남성은 물론 동성애자 혐오

일베의 논리·심리

경제력은 남성 매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력 의존이라는 구도는 성별 권력관계에서 남성이 우위를 점하는 물질적 기반이기도 하다. 남성들은 데이트 비용, 결혼 비용, 가족부양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여성에게 어필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남성 청년들의 부담감이 커지자 여성의 속물근성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 성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남성의 좌절감은 여성혐오라는 퇴행으로 치닫고 있다. 남성이 사회적으로 남성성을 인정받는 경로는 노동을 통해 처자식을 부양하는 것이다. 즉 남성은 아내와 자녀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남성생계부양 가족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청년들은 생계부양자 남성으로서 전망이 요원하여 사회적 남성성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졌다. (...) 어려움에 처한 것은 가족구성과 유지만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관계 역시 위기에 직면했다.

학교 성적이나 각종 취업시험에서 여성들과 경쟁하는 남성들은 여성을 약자로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남성은 군복무를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해의식이 증폭된다. 그러다보니 군가산점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을 위한 할당제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에 반감이 크다. 이는 앞의 연구에서 남성들이 여성혐오의 원인으로 여성가족부를 가장 많이 지목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여성가족부는 남성들에게 경쟁을 통한 생존이라는 게임의 룰을 위반하는 대표적 존재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젠더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남성일수록 .. 사회에서 배제되고 권력관계에서 소외된 남성일수록, 과도한 남성성의 물리적 발현을 통해 남자다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커진다.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쩌면 망상일 수도 있는) 헤게모니 남성성이자 위계적 권력 구조의 최상계층 남성이며, 남성 차별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단 하나 남았다고 여겨지는 특권, 젠더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과잉 장기방어적 행동.. (이나영, 2016)

: 단순 루저들의 일탈적 행동? 그렇다면, 왜 많은 (침묵하는) 남성들의 공감을 얻는가? 남성들이 근본적 사회불평등 구조/신자유주의적 경쟁 심화라는 본질적 문제 보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인가?

한국사회의 젠더 현실?

한국의 여성은 모두 속물주의적 김치녀? 한국남성은 모두 일방적, 잠재적 가해자인가?

폭압적 가부장제, 한국에 있었는가? “가부장 없는 가부장제 "

또는 그들은 최근 경제위기 이후, 가부장제, 인구적/경제적/사회적 존재 기반 약화

:남성성의 위기: 가족 부양자로서의 지위 상실 + 여성과의 경쟁

⇒ 두 세력 모두 잘못된 현실인식 기반.

⇒ 순수한 젠더 문제? 계급, 세대 문제 교차.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나영), 20~30대 여성(천정환)

남성들의 반응

1) 남성 진보 또는 남성 지식인의 비판: 페미니즘 담론의 과잉이나 급진주의적 경향 지적 ↔ 자지랖

2) 친페미니즘: 성찰과 반성: 남성 페미니스트 등장

3) 일베

4) 대다수의 침묵

왜 일베가 보수의 대표가 되었는가?

젠더문제에 침묵하는 보수 세력 또는 남성

Ⅲ. 여성정책의 한계

차별금지법이나 혐오발언 규제에 대한 법제화?

이미 사적 영역에 만연한 “혐오“라는 감정, 사법적 개입 불가능.

혐오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조건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

: 단순히 여성정책이 아니라 “성 gender 정책 " 의 필요성.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 20년이 넘게 시행된 젠더정책들, 오히려 갈등만 초래한 원인?

- 형식적 평등만을 추구

- 가부장제와 여성주의를 양극단으로 하는 이념적 스펙트럼: 보수와 진보 등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의 도구

- 여성정책 = 가족정책?

-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가정 안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싫으면 노동시장으로 나와라? 잠재적 결과, “탈가족화“.

<표 1> 벌루의 성평등 전략 프레임

비전	같음(sameness)	다름(difference)	성불평등 구조의 변화 (transformation)
전략	통합(inclusion): 남성의 기준에서 출발	여성의 특수성: 여성의 특수한 조건과 욕구에서 출발	젠더 관점의 통합
정책접근	균등 처우 (equal treatment): 공적영역에서의 동등한 법적권리와 기회 보장	특별 처우 (special treatment): 차별 집단으로서 여성의 위치와 특수한 욕구를 고려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혁
정책수단	법제도적 평등과 차별 제거: 남녀고용평등법,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제 폐지	여성 특화 제도와 정책: 여성직업훈련, 여성의 취창업 지원, 적극적 조치	성 인지 정책: 공무원교육, 성인지 통계, 성인지적 정책 분석(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
한계	남녀 조건의 차이를 간과	단기적, 부분적, 여성의 주변화	기술관료적 절차의 도구로 축소될 위험성

자료: 마경희(2014)

Ⅳ. 정책 제언
보수가 고민해야 할
젠더정책의 주요 이슈들

보수는 반여성적?
“한국” 보수만 반여성적?

- 여성혐오 misogyny : 여성에 반하는 뿌리 깊은 편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 찍거나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모든 생각들.

- 서구 종교, 신화, 문학, 학문들을 통해 재생산.

- 미소니지의 근간: 1) 가치나 존엄 면에서 여성은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믿음, 2)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가진 파괴적 능력 따라서 배제, 억압의 대상.

- 서구, 유교 전통보다 더욱 여성차별적, 배제적인 여성혐오의 역사

1. 가족: 보수의 가치? 보수적 가치?

- 사회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가치 강조

- 출산/양육 “기능” 담당하는 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 실현하는 사회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 근본적 가치: “장기적 관계에 대한 도덕적 헌신”

- 기존 여성정책: 출산/육아 중심: 가족의 “기능“만 강조: 미혼모, 동성간 결합(입양, 양육)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

2. 가부장적 핵가족 모델에서 양성평등적 핵가족 모델로의 전환

경제활동(노동시장)의 평등: 가사노동의 평등

2. 가족 모델의 재정립

- 가부장적 핵가족 모델에서 양성 평등적 핵가족 모델로의 전환 필요

- 경제활동(노동시장)의 평등: 가사노동의 평등

양성평등기본법(2015): “자녀 양육에서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토록”: 남성의 권리와 참여 강조.

⇒ 남성도 정책의 수혜자

- 남성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갖는 필요와 욕구 고려.

: 새로운 모성-부성(분리주의)? 공통의 부모역할(parenthood) 지원.

Ex) 여성전용 공공 육아시설, 조/부모의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적 시선

보수의 해결해야 하는 이슈들

3. 남성의 불이익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그렇다고 다시 남성 특정하는 정책? 분리주의 극복

: 특정 젠더 중심의 정책의 문제는 1999년 군가산제 폐지 논쟁의 반복일 뿐.

4. 양성평등? 성평등?

: 동성애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 종교적 교리에 따른 혐오 선동 배제하고 보수의 근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정책 필요.